

•• 미국 ••

뉴욕전력공사 근로자, 뇌물수수 및 사기혐의로 37개월 징역 선고



미국 연방법무부는 전 뉴욕전력공사(이하 'NYPA') 근로자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37개월의 징역형과 5,000달러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NYPA에서 구매담당 보조를 맡고 있던 Edward P. Goldblatt은 매주(買主)로부터 16만 7,000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의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Goldblatt은 약 8만 6,000달러의 부당한 대금이 NYPA에 부과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 대금의 절반은 Goldblatt의 뇌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매주들에 의해 발생하였다.

Goldblatt은 탈세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받은 뇌물의 금액을 소득신고에 누락 시킨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Goldblatt은 다른 개인과 함께 25만 3,836달러의 손해를 변상하도록 선고 받았다.

그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과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2008년 4월 2일에 구속되었다.

독점금지국의 Scott D. Hammond는 "이번 선고는 경쟁적인 입찰과정을 전복시키려는 자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예"라면서 "연방법무부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 경쟁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근로자와 사회, 그리고 개인을 기만하는 자들을 주저 없이 구속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NYPA는 뉴욕 주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에너지법인단체로서 뉴욕 시민의 이익을 위해 낮은 가격의 전력을 정부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들

에게 공급하였다.

개인 투자들에게는 채권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 세수입이나 국가신용을 사용하지 않았다.

NYPA 본사는 뉴욕 주 알바니에 위치해 있으며 전력발전소와 사무실은 뉴욕 전 지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Goldblatt은 NYPA의 발전소와 사무실을 위해 수백만 달러의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을 수주하고 구입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또한, 그는 판매 주문을 내고 불입을 위한 매주들의 송장을 허가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창고의 재고품 수준을 검토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번 Goldblatt의 구속은 독점금지국의 전력발전산업에서의 뇌물 수수, 입찰 시기, 조세 포탈에 대한 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독점금지국의 뉴욕 지방사무소와 FBI, 국세청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NYPA도 이번 수사에 협력하였다.

2009년 1월 23일 연방법무부

USA

● ● 미국 ● ●

컴퓨터 모니터와 텔레비전용 튜브의 전 세계적 가격담합 기소



Chung-hwa Pictures Tubes Ltd.의 전 대표 이사와 최고경영자가 샌프란시스코 연방대법원에 의해 기소되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이 컴퓨터 모니터와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Cathode Ray Tube(이하 'CRTs')의 가격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독점금지국의 CRTs 튜브산업 분야의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타이완에 거주 중인 Cheng Yuan Lin(또는 C.Y. Lin)은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의해 기소되었다. Lin은 적어도 1997년 1월 28일부터 2003년 7월 4일까지 미국과 다른 지역에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공모하여 가격을 담합하고 경쟁자를 압박하였으며, 생산량을 줄이고 Color Display Tubes(CDTs)의 시장 점유율을 분배하였다.

또한, 그는 1997년 3월 12일부터 2003년 4월 7일 까지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 Color Picture Tubes(CPTs)의 가격을 담합하고 경쟁업체를 압박해온 혐의로 기소되었다.

CRTs는 전자총과 인광성 스크린을 포함하는 Evacuated Glass Envelope에 의해 구성되며, 전자가 스크린에 부딪칠 때 빛이 발산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장치이다.

CDTs는 컴퓨터 모니터와 다른 특별한 장치들에 사용되며, CPTs는 컬러텔레비전에 사용된다.

1997년부터 시작된 CDTs와 CPTs를 포함한 CRTs 시장의 공모로 인해 약 230억 달러의 부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독점금지국의 Scott D. Hammond는 "이번 담합으로 인해 CRTs가 사용된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구입하려는 수많은 미국인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독점금지국은 미국 내의 비즈니스와 고정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가 있다면,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Lin은 2000년 2월 경쟁자들을 압박하고 퇴출시키기 위해 Translator-Liquid Crystal Display(TFT-LCD) 패널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셔먼법을 위반한 Lin에게는 2004년 6월 22일 이전에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개인에게 있어서 최고액인 35만 달러와 3년 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벌금은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익과 피해자들의 손해액수가 셔먼법이 제시한 최고 벌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2배로 증가될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과 독점금지국, 그리고 FBI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다.

2009년 2월 10일 연방법무부

••• EU •••

Bonnier와 Schibsted의 Retriever Sverige 소유 의혹 조사



EU 위원회는 EU 합병규정에 따라 스웨덴의 Bonnier와 노르웨이의 Schibsted가 현재 Schibsted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의 Retriever Sverige를 '의도적으로 소유하려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onnier와 Schibsted는 스웨덴 미디어산업의 주도적인 기업이며, Retriever Sverige는 스웨덴에서 미디어 모니터링과 미디어 자료, 그리고 비즈니스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초기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는, 스웨덴에서 제공되는 미디어 모니터링과 미디어자료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저하 우려로 인하여 계획적인 기업 소유는 단일시장의 조화에 대하여 심각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조급하게 판단해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앞으로 90여 일 간의 조사일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2009년 6월 15일까지 European Economic Area(EEA)의 경쟁성에 심각한 저해요인을 야기 시켰는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다. Neelie Kroes 집행위원장은 "디지털시대가 EU 국민들과 기업체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겠지만, 거대한 미디어그룹은 인터넷에 의한 새로운 기회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Bonnier는 전 세계 20개국에 진출한 국제적 미디어그룹이다. Bonnier는 대부분의 미디어포맷을 망라하고 있으며 이를 서적, 잡지, 비즈니스 간행물, 신문, 그리고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등 5가지의 비즈니스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Retriever Sverige는 스웨덴의 B2B 제공업체로 디지털미디어정보서비스와 비즈니스 분석 및 문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현재 Schibsted의 자회사이다.

그리고 스웨덴을 포함한 22개국에서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Schibsted는 신문사업, TV, 온라인 서비스, 모바일폰, 서적과 잡지영역에서 두루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스웨덴의 미디어 모니터링과 미디어자료 시장에 반경쟁적인 영향을 주는지 염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초기 조사를 통하여 Bonnier와 Schibsted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스웨덴의 주요 신문사의 기사들이 스웨덴의 미디어 모니터링과 자료서비스 규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조사 중에 미디어 모니터링은 기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제공되는 디지털형식으로, 이는 신문기사의 출판자가 저작권법의 부합 여부를 따지는 물리적 형식과는 반대되는 것임을 밝혀냈다. 그리고 미디어자료서비스는 오직 디지털형식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출판자의 승인 여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거래 후에 도래할 수 있는 위험성과 Bonnier와 Schibsted가 Retriever Sverige의 경쟁사들이 제공하는 신문기사들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1월 29일 EU위원회

Europe

EU

네덜란드 방송시장 경쟁성 향상 위한 OPTA 제안 통과

EU 위원회의 “네덜란드 방송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통신 규제기관인 OPTA는 네덜란드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Ziggo, UPC, Delta, 그리고 CAIW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규제방안을 통해 라디오와 TV(RTV) 전파 제공자들이 케이블방송 제공자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Ziggo와 UPC는 다른 방송시장의 관계자들이 종래의 아날로그 라디오와 TV 패키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TV 패키지 서비스 제공을 허락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OPTA에게 비효율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비롯하여 하부구조의 혁신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아날로그 서비스의 연장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OPTA는 경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방송시장구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규제방안을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EU 통신위원 Viviane Reding은 “네덜란드 방송시장에 더 많은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OPTA의 생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위원회가 OPTA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규제방안에 승인한 이유는 네덜란드의 시청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더 나은 품질의 방송서비스를 기다려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Neelie Kroes 집행위원장은 “아날로그 RTV의 규제가 디지털화를 연기하는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네덜란드의 방송규제기관은 아날로그 RTV의 재판매계약을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는 약 80%의 가정에서 케이블 플랫폼을 통해 라디오와 TV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케이블 플랫폼의 대안기술인 인공위성, 디지털, xDSL, 그리고 광통신은 네덜란드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디지털TV와 위성TV는 1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IPTV는 고작 1%의 시장만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OPTA의 규제방안은 케이블 플랫폼을 통한 아날로그 전송을 뛰어넘어 디지털 기술대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케이블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네덜란드 방송시장의 경쟁성 향상을 위해 OPTA의 규제방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위원회는 OPTA에 아날로그 RTV 전송의 불필요한 확장으로 인해 디지털 하부구조에 효과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재판매 규제방안의 시행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여 시장구조의 경쟁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OPTA에 요청하였다.

2009년 2월 11일 EU위원회

Europe

●● 독일 ●●

Nordzucker 일부 생산공장 매각해야만 Danisco Sugar 인수 가능

연 방카르텔청은 Nordzucker AG가 덴마크회사인 Danisco A/S, Danisco Sugar A/S를 인수하기 전에 Anklam 지역의 Danisco 생산공장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한하여 기업 인수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계획이 독일의 내수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연방카르텔청의 이번 조사를 통해 독일에서 가장 큰 설탕 생산업체인 Sudzucker AG와 Nordzucker가 시장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설탕시장의 구조적 상황은 EU 회원국 내에서의 설탕 시장에 대한 규제안과 그 이행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은 생산가격의 투명성과 상품 가격, 설탕 생产业의 이익 할당 둑, 그리고 포괄적인 수출관리 영역에 이르고 있다.

EU의 설탕시장 규제 방안은 이미 국가에 의한 독점이나 소수의 과점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상황은 대규모 설탕 생산의 균등성과 설탕 생산이 필수적인 식품산업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이다.

연방카르텔청은 독일 내의 많은 지역이 설탕시장에 있어서 특별한 분포구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증거를 입수하였는데, 이 증거를 통해 생산자들이 수송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안이나 제품의 수용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독일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경쟁자들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임을 밝혀냈다.

연방카르텔청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설탕시장에서 어떠한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EU 위원회

에 의해 장려되고 있는 제3국가에 대한 유럽의 설탕시장 개방은 현재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한 없는 Danisco Sugar A/S의 인수는 Nordzucker와 Sudzucker에게 시장의 절대 우위를 인정해주는 셈으로, 이는 곧 Anklam 지역의 생산공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독일 내에서의 강력한 경쟁자를 배제시키고 시장 독점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내수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업체인 Anklam의 설탕 생산공장은 인수자가 과점시장의 일원이 아니며, 독일 시장에서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경쟁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경우에만 인수가 가능하다.

또한, 시장 활동의 필수적인 Anklam's의 설탕 생산의 지분은 제3자에게 매각된 후 회수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유럽의 설탕시장에서 활동하려는 생산자들은 경쟁성 부분에서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2월 17일 연방카르텔청

Europe

● ● ● 독일 ● ● ●

출판기업 M. DuMont Schauberg의 Berliner Verlag 인수 승인

연

방카르텔청은 출판업체인 M. DuMont Schauberg의 Berliner Verlag에 대한 독자적인 통제권과 소유를 승인하였다.

연방카르텔청은 이번 합병으로 인해 광고시장과 독자들을 상대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번 합병을 승인하였다.

서로 활동하는 영역이 다름으로 인해 이번 합병은 출판업계의 생산 활동에 중복되어 겹치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Brliner Verlag는 Berliner Zeitung, Berliner Kurier, 잡지 'Tip'과 몇 개의 지역 광고 신문을 출판하고 있으며, Hamburger Morgenpost Verlag를 소유하고 있다.

출판회사인 M.Dumont Schauberg는 주로 Cologne/Bonn 지역에서 지역일간지인 'Kolner Stadtanzeiger'와 Kolnische Rundschau, 그리고 Express를 출판하고 있다.

또한, Bonner Zeitungsdruckerei und Verlagsanstalt H. Neusser GmbH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Saxony-Anhalt 남부지역에서 일간지를 발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일간지 Frankfurter Rundschau를 출판하고 있는 Duck-und Verlagshaus Frankfurt am Main GmbH의 지분 역시 소유하고 있다.

연방카르텔청은 시장구조를 고려했을 때, 이번 합병으로 인해 Berlin과 Hamburg에서 출판되는 신문과 일간지 시장에 지배적인 우위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출판회사 Holtzbrinck와 Axel Springer와 같이 해당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카르텔청은 또한 각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이 거리 상으로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번 합병이 지역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지역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떠한 요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합병 이전에 두 출판회사가 서로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합병은 Berlin과 Colobne 지역, 그리고 Saxony-Anhalt지역의 독자들과 광고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쟁업체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9년 2월 11일 연방카르텔청

